

백승준 행정학 강의계획서

“총론의 깊이 있는 전달과 각론의 체계적인 정리의 유기적인 학습에 중점을 둔
상세한 설명과 이해중심의 행정학 강의!”

■ 담당 백 승 준

- 서울대 행정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통합과정수료(정치철학전공)
- (전) 한국행정학(유민봉 著) 개정위원
- (전) EBS교육방송 출강
- (전) 서울대정부혁신시스템센터연구원
- (전) 한국조사회학회연구원
- (전)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식약청, 산림청 등 혁신연구원 역임

■ 강의일정 2020년 6/4(목) ~ 6/26(금), 총 20회 ※ 월~토 강의

■ 시 간 [오후 실강반] 1:40 ~ 5:10

■ 강의교재 ▶ 한국행정학(유민봉, 서점구매)
+ 입문자용 행정학 WORKBOOK(제본집, 실비제공)
+ 입문자를 위한 핵심수험자료(무료제공)

■ 개설취지 ■ 비전공 · 초심자의 시각에 맞춘 수업의 진행 - 기본서 활용과 기출분석을 통한 안정적 기반 확립

예비순환은 본격적인 입문을 앞두고 기초학습을 원하시는 수험생을 위해 기획한 강의입니다. 입문자들께서는 새로운 공부의 생소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간혹 학원수업의 난이도를 소화하기 위해 따로 기초학습을 수행한 후에 수강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비순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개설하는 강의로서 행정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자를 위한 철저히 초심자 중심의 과정입니다.

■ 강의특징 ■ 글쓰기 훈련을 통한 2차 행정학 접근

기초 설명과정이 끝난 뒤 글쓰기 훈련을 통해 행정학적 논술에 대해 전달해 드립니다. 강사의 직접 대면첨삭 과정을 통해 기초과정에서부터 세세히 지도를 해드립니다.

■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

경제학에서 미시와 거시가 모두 중요하듯이 행정학도 총론과 각론을 유기적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총론과 각론을 모두 중요히 다루어 예비순환을 진행합니다. 특히 각론의 여러 문제해결기법들은 고시 과목 가운데서도 행정학에서만 다루는 소재입니다.

행정학 특유의 응용사회과학적 시각을 익히기 위해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6월 4일(목)	<p>【행정학 입문-오리엔테이션】</p> <p>행정학의 입문과정이 진행됩니다. 행정학은 과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진단과 처방의 문제해결적 성격을 모두 갖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다루는 의학(醫學)과도 속성이 비슷한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p> <p>주요 초점은 비전공 · 초심자라도 행정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p>
■ 제 2 회	6월 5일(금)	<p>【비전공초심자를 위한 특강- 학(學)으로서의 행정학을 바라보는 시각】</p> <p>아무리 수험이라지만 하나의 학문을 다루다 보니 암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학문의 생태계에는 그에 맞는 언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학 같은 응용사회과학은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입문했을 때 그 혼란이 더 큼니다.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숲을 못 보는 것이죠. 초심자에게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것은 강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차근차근 학문이 언어를 익히시며 행정학이 왜 필요하고 생겨났으며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p>
■ 제 3 회	6월 6일(토)	<p>【공공가치】</p> <p>공공가치(Public Value)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행정학은 경험적·실증적 지식뿐만 아니라 당위적 · 규범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는 전통적인 빈출소재입니다.</p>
■ 제 4 회	6월 8일(월)	<p>【사회과학 입문을 위한 기본기 확립 - 수험을 위한 기초인문학】</p> <p>피해가 봐야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학이 소위 ‘뜬구름 잡는 과목’이라고 느끼는 이면에는 철학(哲學)과 논리적 사고에 대한 기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입문하기 때문입니다. 수험과 밀접한 내용으로서, 사회과학 입문을 위해 필요한 필수 콘텐츠입니다.</p> <p>기본기라 갖추다 함은 이런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파트를 이해하고 난 뒤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각도 훨씬 업그레이드됩니다.</p>
■ 제 5 회	6월 9일(화)	<p>아울러,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여타의 과목에 있어서도 기본기를 확립할 수 있는 강좌로서 비전공 · 초심자들이 수험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들로만 구성합니다.</p>
■ 제 6 회	6월 10일(수)	
■ 제 7 회	6월 11일(목)	

- 제 8 회 6월 12일(금) **【행정학 발달사-미국행정학 발달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과의 비교】**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미군정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영향력은 19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신공공관리주의를 통해 절정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너무나 상이한 역사와 행정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정이론은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행정이론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정통파 행정학의 등장과 완성, 1940년대부터의 정치학적 행정학으로의 복귀, 1960년대부터의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등장, 1980년대부터의 대통령과 행정윤리론 및 신공공관리론 등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하여서만, 미국의 행정학, 즉 현대행정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미국행정학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적 행정학 정립의 기초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 제 9 회 6월 13일(토)
- 제 10 회 6월 15일(월)
- 제 11 회 6월 16일(화) **【NPM과 거버넌스】**
재정운영의 실패와 강한 정부의 불신으로 서구사회에서 야기된 신자유주의 사조는 행정학적으로 NPM의 직접적인 동인(動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지향성과 관리지향성의 한계에서 Governance의 개념 대두의 원인이 됩니다.
국정운영에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는 거버넌스는 그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만큼이나 논의의 시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완벽히 이해해야 현대행정학의 논의를 정확히 배울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순환 과정을 통해 여타의 거버넌스론과 병행하여 발전된 논의가 진행됩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자연스러운 행정학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 제 12 회 6월 17일(수)
- 제 13 회 6월 18일(목)
- 제 14 회 6월 19일(금) **【행정의 처방적 성격: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관리】**
행정의 처방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행정학은 인접한 순수사회과학과는 달리 문제해결지향적이고 처방적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전략기획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의 기본용어를 숙지합니다.
- 제 15 회 6월 20일(토) **【성과관리】**
현재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로 대표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BSC, 성과계약등평가, 성과관리에산제도 등 성과관리 관련 이슈들을 확인합니다.
- 제 16 회 6월 22일(월)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최근 행정학의 새로운 키워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입니다. 특히 최근 정보화를 행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기에 전자정부의 개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기술문제에 정보체계관련 시각이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행정학에 빈번히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자업무처리의 핵심 메커니즘을 학습 합니다.

■ 제 17 회 6월 23일(화)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이란 직무와 개인의 통합과정으로서 정부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입니다.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공공인사 행정을 다루어봅니다. 전통적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인사 행정 혁신에 대해 학습합니다.

■ 제 19 회 6월 25일(목)

【조직론】

조직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사항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다보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조직행동론과 조직구조론을 모두 다루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조직문화, 갈등관리도 이 부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20 회 6월 26일(금)

【재무행정론】

전통적 재무행정이론과 재정개혁및 혁신의 모든 부분을 아우릅니다. 참여정부 기획예산처나 현정부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취합하여 현실정책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재무행정론은 뚜렷한 개혁적 성과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빈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기 계획서는 협의 및 강사의 판단을 통해 범위,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